

전국한우인의 날 ·
전국한우협회
창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전국한우인의 날 및 제16주년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유채꽃 플라자에서 개최됐다.

1,200여 명의 전국한우지도자 및 농가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산업이 민족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우를 사랑하는 소비자,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의 가격이 미래의 한우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산업에 임하는 철학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한우산업 안정화, 산업품격제고, 한우의 특징보존 발전을 골자로 하는 전국한우협회의 이념을 되새기자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생산자는

비용절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장점을 설명하고 한우를 지키는 것이 농촌을 지키는 길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며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한우산업이 돼야 하고, 정부도 여러분과 한우산업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행사가 한우산업의 앞날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김영란법과 농촌 지역구 문제가 우리 축산 및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우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회원(장관상)과 지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한우산업 발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및 한우농가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으며 축하공연 및 한우농가 노래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9월 8일은 해비치 호텔 크리스탈 홀에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특강과 전국한우협회 지회 지부 우수사례 발표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신구범 전 지사는 한우농가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전북도지회, 장흥군지부, 정읍시지부순으로 전 회원의 모범이 될 사례 발표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9. 09]

한돈자조금, 서울 광화문에서
한돈으로 나누는
추석명절 캠페인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추석을 맞이하여 2015 한돈 추석선물 세트를 알리기 위한 한돈 명절 캠페인 행사를 9월 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명절캠페인은 건강한 우리돼지 한돈을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물 문화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온 행사이다. 올해 추석 행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돈만갈아라’를 주제로 서울종로구 청계천에서 진행했다. 이날 한돈자조금은 ‘금빛 한돈 선물로 한가위를 풍성하게’를 슬로건으로 보름달을 형상화한 과자를 증정하며 한돈과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명절을 기원했다.

이어진 포토행사에서는 이병규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과 한돈의 캐릭터인 한도니가 함께 한돈 선물세트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한돈 명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서 소

비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돈 명절 캠페인을 통해 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한돈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한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날 진행한 행사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한돈 선물세트를 제공하며 동시에 추석 물가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전국 양돈농협과 함께 한돈 기획세트 1,000세트를 50%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한돈 한가위바위보!’, ‘사랑앓한돈프로포즈’, ‘추석 캠페인 소문내기!’ 등의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소비자들에게 선물세트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9. 07]

2015 전국 양계인 대회
개최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고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15 전국양계인대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라북도 김제시 모악산유스호

스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하나 된 양계인!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AI 뿐만 아니라 메르스 여파, 가뭄과 혹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를 이겨낸 양계인 1,00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다.

개회식에서 양계인들은 수입축산물의 위협, 고병원성 AI에 따른 질병피해, 생산과잉,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참담한 현실임에 따라 당면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사육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계인들은 특히 사육주권 회복을 위한 단합, 차별화된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 유통구조 개선, 적정사육수수 준수, 철저한 차단방역, 의무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주요 행사는 첫날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비전 선포식, 2015 양계정책방향, 경쟁력 강화방안 및 AI발생현황과 예방대책, 강연, 양계인의 밤 행사 등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금산사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구데이를 기념해 양계산물 시식행사를 실시했다.

한편, 올해로 3회를 맞는 양계대상(고려비엔피 후원)은 대한양계협회 고문을 역임하면서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오봉국 양계협회 고문이 수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소철섭 하나농장 대표, 이응철 희망농장 대표, 장용권 은현농장 대표가 선정돼 상패와 부상을 수여받았다.

개회식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계산업의 성장은 AI발생, FTA타결에 따

른 닭고기 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라 더욱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양계인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최근 양계업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산란계는 사육수수가 이미 700만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육계 역시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급률이 70%까지 하락하고 있다”면서 “하나 된 양계인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양계인들의 힘을 모아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양계산업 발전을 지원했다.

축산경제 안기범 기자 [2015. 09. 11]

낙농육우협회, 청년낙농인 교육 실시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선샤인 관광호텔에서 2015년

청년낙농인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교육 첫날 열린 손정렬 회장과의 간담회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낙농인들의 그 동안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최근 낙농상황과 관련한 협회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전북 정읍의 김기석씨는 “최근의 낙농상황이 많이 어렵다. 앞으로 20년에서 40년까지 낙농을 해나가야 할 청년낙농인으로서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크다. 생산자 단체인 협회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렬 회장은 “낙농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청년낙농인 당신들이다. 지금의 상황이 물론 불안하고 힘들 것으로 안다. 선의의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단 협회를 믿고 선배 낙농인들을 믿어 달라”며 “협회는 낙농가들을 위한 조직이며, 낙농가들을 위한 일에는 절대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여러분들이 낙농산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낙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5. 09. 09]

2015 대전세계양봉대회 개막

전세계 양봉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양봉인의 축제가 대전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다. 국내 양봉산업 역대 최고 행사이자 축산업계 국제 행사인 ‘2015대전세계양봉대회’가 지난 9월 15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9월 20일까지 닷새간 열린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약 130여 개국 1만5,000여 명의 국내외 양봉인 및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국내외 양봉인들 및 축산인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학술회의를 비롯해 각국 양봉산물 및 양봉기자재 전시, 우수양봉산물 콘테스트, 테크니컬 투어 등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 국내 양봉산업의 세계적 입지와 벌꿀 수출 발판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조균환 2015대전세계양봉대회 조직위원장(한국양봉협회장)은 “역대 세계대회 행사 중 제일 큰 규모의 행사로 이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양봉산업이 한층 발전되길 바란다”며 “각종 학술대회와 양봉관련 행사로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2015. 09. 17]

사슴협, 2015 우수사슴선발대회서 수상자 시상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는 지난 9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5년 우수사슴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현장심사를 통과한 56두 엘크사슴 중 상위 30위의 우수사슴의 녹용이 이날 현장 전시됐고, 8명의 전문가들이 이들 녹용을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경기도 평택의 한진곰사슴목장 한의석 대표가 출품한 녹용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황성사슴목장 황충성씨(총점 2위), 송상사슴목장 류흥권씨(녹용중량부문), 벨엘사슴목장 이연배씨(상대비율부문), 제일사슴목장 정재일씨(각관분지부문), 무지개사슴목장 박연곤씨(녹용외관부문)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현장에는 각 지역의 우수 사슴에 대한 생산능력을 비교하고자 200여 명의 사슴사육농가 및 관계기관에서 참관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5. 09. 09]

